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5 주차 (19:28~20:18)

(2015년 11월 29일 - 2015년 12월 5일)

(제3권 45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1 월 2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주입)

오늘의 본문 (요19:28~37)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시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을 아신 이후
(Μετὰ τοῦτο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δη πάντα τετέλεστοι,
성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ἵνα τελειωθῇ ἡ γραφή)
그[예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διψῶ.)
- (29절) 신포주가 가득 담긴 잔이 놓여있었습니다 (σκεῦος ἔκειτο ὄξους μεστόν·)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 가득한 스폰지를 우슬초로
(σπόγγον οὖν μεστόν τοῦ ὄξους ὑσώπῳ περιθέντες)
그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προσήνεγκαν αὐτοῦ τῷ στόματι)
- (30절)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말씀하시길 (ὅτε οὖν ἔλαβεν τὸ ὄξος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τετέλεστοι,
그가 머리를 숙이시면서 그 영을 넘겨주셨습니다 (καὶ κλίνας τὴν κεφαλὴν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
- (3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그 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ἐπεὶ παρασκευὴ ἦν.)
안식일에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μείνῃ ἐπὶ τοῦ σταυροῦ τὰ σώματα ἐν τῷ σαββάτῳ.)
왜냐하면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ἦν γὰρ μεγάλη ἡ ἡμέρα ἐκείνου τοῦ σαββάτου.)
그들이 빌라도를[에게] 요구했습니다 (ἠρώτησαν τὸν Πιλάτον)

-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없이 하도록 (ἵνα κατεργῶσιν αὐτῶν τὰ σκέλη καὶ ἄρθῶσιν.)
- (32절) 그러자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ἦλθον οὖν οἱ στρατιῶται)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첫 번째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καὶ τοῦ μὲν πρώτου κατέαξαν τὰ σκέλη)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다른 사람의 (καὶ τοῦ ἄλλου τοῦ συσταυρωθέντος αὐτῷ·)
-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ἐπὶ δὲ τὸν Ἰησοῦν ἐλθόντες)
그들이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자 (ὡς εἶδον ἤδη αὐτὸν τεθνηκότα.)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οὐ κατέαξαν αὐτοῦ τὰ σκέλη.)
-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창으로 그[예수님]의 옆을 찔렀습니다 (ἄλλ' εἷς τῶν στρατιωτῶν λόγχῃ αὐτοῦ τὴν πλευρὰν ἔνυξεν.)
즉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εν εὐθὺς αἷμα καὶ ὕδωρ.)
- (35절)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습니다 (καὶ ὁ ἑωρακὼς μαρτύρηκεν.)
그리고 그의 증거는 참되었습니다 (καὶ ἀληθινὴ αὐτοῦ ἐστὶν ἡ μαρτυρία.)
그가 참을 말한 것을 알았고 (καὶ ἐκεῖνος οἶδεν ὅτι ἀληθῆ λέγει.)
당신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πιστεύ[σ]ητε.)
- (36절)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ἐγένετο γὰρ ταῦτα)
성경이 성취되도록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ὅστων οὐ συντριβήσεται αὐτοῦ.)
- (37절)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시 말하길 (καὶ πάλιν ἑτέρα γραφὴ λέγει·)
'그를 찌른 자들을 그가 볼 것이다' (ὄψονται εἰς ὃν ἐξεκέντησα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1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형 집행이 길어져서 안식일에 예수가 죽거나 또는 그 시신을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달아두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숨지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는 로마 제국의 관례와 유대인들의 전통이 상호 충돌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 가도록 며칠이고 십자가에 매달아놓았습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인 후에는 그대로 방치하여 술개와 같은 야생 조류의 먹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인간적인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은 달랐습니다. 신명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²³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애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2-23).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산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밤 동안 시신을 매달아 놓거나 나아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시체를 달아놓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해가지기까지 예수가 죽지 않고 있다가 밤중에 죽을 경우 시신이 밤새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는데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일은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십자가형을 당일에 끝내야 하는 경우, 죄인이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철망치로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외 규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지금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속셈은 예수의 다리가 십자가 상에서 쇠망치로 부숴지는 모습을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말입니다. (D.A. Carson, 623 참조).

32-34 절을 읽으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다가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음을 알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찔린 곳으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내에는 기독교의 근간을 위협하는 여러 잘못된 주장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런 세력들의 주장을 일축하려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에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가현설, Docetism). 즉,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죄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실제로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이같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죽음까지 일관되게 그분의 육적 요소를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1장 14 절에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호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조의 주체인 그 로고스, 우주의 근원이신 그 로고스가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목격담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는 ‘가현설’을 온전히 반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변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²¹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

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일 2:21-23).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3).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요일 5:5-9).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기독교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들은 죄로 인해 한 사람도 예외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이므로 인간이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지요. 그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 온전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다고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본 자가 증거하였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19:28~37)

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시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을 아신 이후
(Μετὰ τοῦτο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δη πάντα τετέλεστοι,
성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ἵνα τελειωθῇ ἡ γραφή),
그[예수]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διμῶ).)
- (29절) 신포주가 가득 담긴 잔이 놓여있었습니다 (σκεῦος ἔκειτο ὄξους μεστόν·)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 가득한 스폰지를 우슬초로
(σπόγγον οὖν μεστόν τοῦ ὄξους ὑσώπῳ περιθέντες)
그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προσήνεγκαν αὐτοῦ τῷ στόματι.)
- (30절)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말씀하시길 (ὅτε οὖν ἔλαβεν τὸ ὄξος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τετέλεστοι),
그가 머리를 숙이시면서 그 영을 넘겨주셨습니다 (καὶ κλίνας τὴν κεφαλὴν παρέδωκεν τὸ πνεῦμα.)
- (3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그 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ἐπεὶ παρασκευὴ ἦν),
안식일에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μὴ μείνῃ ἐπὶ τοῦ σταυροῦ τὰ σώματα ἐν τῷ σαββάτῳ),
왜냐하면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ἦν γὰρ μεγάλη ἡ ἡμέρα ἐκείνου τοῦ σαββάτου),
그들이 빌라도를[에게] 요구했습니다 (ἠρώτησαν τὸν Πιλάτον)

-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없애 하도록 (ἵνα καταργῶσιν αὐτῶν τὰ σκέλη καὶ ἄρθῶσιν.)
- (32절) 그러자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ἦλθον οὖν οἱ στρατιῶται)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첫 번째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καὶ τοῦ μὲν πρώτου κατέαξαν τὰ σκέλη)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다른 사람의 (καὶ τοῦ ἄλλου τοῦ συσταυρωθέντος αὐτῶ·)
-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ἐπὶ δὲ τὸν Ἰησοῦν ἐλθόντες)
그들이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자 (ὡς εἶδον ἤδη αὐτὸν τεθνηκότα.)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οὐ κατέαξαν αὐτοῦ τὰ σκέλη.)
-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창으로 그[예수님]의 옆을 찔렀습니다 (ἄλλ' εἷς τῶν στρατιωτῶν λόγχῃ αὐτοῦ τὴν πλευρὰν ἔνυξεν.)
즉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καὶ ἐξῆλθεν εὐθὺς αἷμα καὶ ὕδωρ.)
- (35절) 그리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습니다 (καὶ ὁ ἑωρακὼς μαρτύρηκεν.)
그리고 그의 증거는 참되었습니다 (καὶ ἀληθινὴ αὐτοῦ ἐστὶν ἡ μαρτυρία.)
그가 참을 말한 것을 알았고 (καὶ ἐκεῖνος οἶδεν ὅτι ἀληθῆ λέγει.)
당신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πιστεύ[σ]ητε.)
- (36절)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ἐγένετο γὰρ ταῦτα)
성경이 성취되도록 (ἵνα ἡ γραφὴ πληρωθῇ·)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ὅστω οὐ συντριβήσεται αὐτοῦ.)
- (37절)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시 말하길 (καὶ πόλιν ἑτέρα γραφὴ λέγει·)
'그를 찌른 자들을 그가 볼 것이다' (ὄψονται εἰς ὃν ἐξεκέντησα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5 절을 읽으십시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증거하였고, 그 증거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믿게 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설명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부각하려고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활동할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몸에서 분명히 피와 물이 나왔다는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고, 35 절은 바로 제 3자가 그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목격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척에서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증거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마르투레오’(μαρτυρέω)입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 체험한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사는 신약성경에 총 76 번 사용되었는데 그중에 33 번이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의 서신서 및 계시록에 14 번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사도 요한의 글에만 총 47 번이 사용된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증거하다’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요 1:6-8).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요 1:34). 또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눈에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기에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35 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이땅에서의 소명을 완수한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도 요한일 거라 추측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증인이 사도 요한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과 동일한 일을 목격한 누군가가 요한의 때까지 살아서 그 목격담을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의 말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세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롬 3:21 참조). 요한은 36 절과 37 절에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요일 1:1-2).

하지만 제자들의 증언은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요한은 세 번째 요건을 갖춘 증언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외에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 19:15).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요 8:16-18).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터이니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후 13:1).

요한은 지금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은 다행히 제자인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증언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사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직접 목격하고 직접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이란 바로 그 체험을 남들 앞에서 증언하는 삶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했나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언하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아리마대 요셉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19:38~42)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41.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원문해석하기

- (38절) 이 일 후에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이 빌라도를[에게] 요청했습니다
(Μετὰ δὲ ταῦτα ἠρώτησεν τὸν Πιλάτον Ἰωσήφ [ὁ] ἀπὸ Ἀριμαθαίας)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숨겼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ὄν μαθητῆς τοῦ Ἰησοῦ κεκρυμμένος δὲ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의 몸을 가져 가도록 (ἵνα ἄρῃ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καὶ ἐπέτρεψεν ὁ Πιλάτος,)
그러자 그가 와서 그[예수님]의 몸을 가져갔습니다 (ἦλθεν οὖν καὶ ἤρεν τὸ σῶμα αὐτοῦ.)
- (39절)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ἦλθεν δὲ καὶ Νικοδήμους,)
먼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왔던 (ὁ ἐλθὼ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τὸ πρῶτον,)
백 파운드(로마 계량) 정도의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들고
(φέρων μίγμα σμύρνης καὶ ὀλῆς ὡς λίτρας ἑκατόν.)
- (40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ἔλαβον οὖν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그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묶었습니다 (καὶ ἔδησαν αὐτὸ ὀθονίοις μετὰ τῶν ἀρωμάτων,)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는 풍습이었습니다 (καθὼς ἔθος ἐστὶ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ἐνταφιάζειν.)
- (41절) 그런데 그가 십자가형을 당한 그 동산에 (ἦν δὲ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ἐσταυρώθη κήπος,)
그리고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καὶ ἐν τῷ κήπῳ μνημεῖον καινὸν)
그 안에 아무도 안치되지 않았던 (ἐν ᾧ οὐδέπω οὐδεὶς ἦν τεθειμένος·)
- (42절) 그런데 유대인의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ἐκεῖ οὖν διὰ τὴν παρασκευὴν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ὅτι ἐγγὺς ἦν τὸ μνημεῖον,)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ἔθηκαν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오므로써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앞서 요한은 두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 복음에도 공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관 복음에서 소개하는 요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일 후에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이 빌라도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숨겼던 예수님의 제자인데”(요19:38)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마 27:57).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막 15:43).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눅 23:50-51).

사복음서에 기록된 정보를 종합하여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도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아리마대 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리마대의 뜻은 ‘고귀한,’ ‘승고한,’ ‘높은’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둘째,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형식상이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선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에 요셉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부자라고 하면 사두개파를 연상하기 쉬우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점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그는 당대에 명망있던 사람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존중받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섯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금욕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

있던 에센파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중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 감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왔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도 그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소심함과 비겁함을 질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겁한 모습은 비단 요셉에게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비겁함, 소심함, 기회주의자’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이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제자들도 덩달아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는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숨 하나 부지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무기력했고 비겁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일차 독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핍박이 두려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민족 종교라는 이유로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이 두려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떠나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핍박을 피해 유대인들의 모임으로 들어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8-10).

특히 히브리서는 극심한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²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²⁵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²⁶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²⁷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²⁸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²⁹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³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³¹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³²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³³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³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앎이라”(히 10:26-34).

극심한 환란은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자신의 신자됨을 숨기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되찾은 것이지요. 도대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런 용기가 생겨난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힘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둠에서 빛으로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9:38~42)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 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41.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원문해석하기

- (38절) 이 일 후에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이 빌라도를[에게] 요청했습니다
(Μετὰ δὲ ταῦτα ἠρώτησεν τὸν Πιλάτον Ἰωσήφ [ὁ] ἀπὸ Ἀριμαθαίας)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숨겼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ὄν μαθητῆς τοῦ Ἰησοῦ κεκρυμμένος δὲ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의 몸을 가져 가도록 (ἵνα ἄρῃ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καὶ ἐπέτρεψεν ὁ Πιλάτος,)
그러자 그가 와서 그[예수님]의 몸을 가져갔습니다 (ἦλθεν οὖν καὶ ἤρεν τὸ σῶμα αὐτοῦ.)
- (39절)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ἦλθεν δὲ καὶ Νικοδήμους,)
먼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왔던 (ὁ ἐλθὼ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τὸ πρῶτον,)
백 파운드(로마 계량) 정도의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들고
(φέρων μίγμα σμύρνης καὶ ὀλῆς ὡς λίτρας ἑκατόν.)
- (40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받았습다 (ἔλαβον οὖν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그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묶었습니다 (καὶ ἔδησαν αὐτὸ ὀθονίοις μετὰ τῶν ἀρωμάτων,)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는 풍습이었습니다 (καθὼς ἔθος ἐστὶ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ἐνταφιάζειν.)
- (41절) 그런데 그가 십자가형을 당한 그 동산에 (ἦν δὲ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ἐσταυρώθη κήπος,)
그리고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있었습다 (καὶ ἐν τῷ κήπῳ μνημεῖον καινὸν)
그 안에 아무도 안치되지 않았던 (ἐν ᾧ οὐδέπω οὐδεὶς ἦν τεθειμένος·)
- (42절) 그런데 유대인의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ἐκεῖ οὖν διὰ τὴν παρασκευὴν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ὅτι ἐγγὺς ἦν τὸ μνημεῖον,)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ἔθηκαν τὸν Ἰησοῦ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9 절을 읽으십시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100 파운드(로마계량)의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공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은 문학 작품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당시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일어났던 사실을 일기 쓰듯 나열한 것이 아니고 문학이라는 틀에 넣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건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바리새파에 속한 한 유대인 지도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니고데모에 관해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해 ‘먼저 밤에 예수께 나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의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 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요 3:1-2).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아마도 공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요한은 19장에서 굳이 ‘밤에’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이에 대해 D.A. Cars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요한은 니고데모의 이같은 행동을 통해 그가 어둠으로부터 일어나와 빛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D.A. Carson, 629).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7장 40-52 절 말씀을 통해 당시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요 7:40-52).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48 절)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49 절)라고 단정지어 말하자 니고데모가 나서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51 절)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 인류 구원, 진정한 생명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 등에 대해 들었던 터였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9 장 39 절에서 니고데모는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행동은 이전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용품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오고 빌라도에게 심문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끝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니고데모는 이미 장례용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전에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4-15).

예수님은 그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마음으로 깨달아졌을 겁니다. ‘아! 영생...!’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어두움 가운데에서 점점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치 전부를 안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직 종착역에 이른 것이 아니지요. 점점 어두움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진리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앙의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4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4-19).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점점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미를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신앙 생활은 뭔가를 하는 것(doing)이 아니라 삶을 통해 성도라는 존재로 지어져가는 것(being)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나요?

40-4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그시신이 새로 마련된 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다리시면서...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막달라 마리아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10)

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개켜 있더라
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러나 안식일로부터 첫날에 (Τῇ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ὴ ἔρχεται)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πρὸ σκοτίας ἐπιούση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무덤으로부터 옮겨진 돌을 보았습니다 (καὶ βλέπει τὸν λίθον ἠρμέν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 (2절) 그래서 그녀가 달려서 시몬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τρέχει οὖν καὶ ἔρχεται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καὶ πρὸς τὸν ἄλλον μαθητὴν ὃν ἀφιλει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주를 옮겼습니다 (ἤραν τὸν κύρι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그리고 그를 옮겨 놓은 장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οἴδαμεν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3절)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왔습니다 (Ἐξῆλθεν οὖν ὁ Πέτρος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ής)
그리고 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καὶ ἤρχοντο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4절) 그들이 함께 달려갔습니다 (ἔτρεχον δὲ οἱ δύο ὁμοῦ.)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 앞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ής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그리고 그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καὶ ἦλθε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5절) 그러나 들여다 보니 (καὶ παρακύψας)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βλέπει κείμενα τὰ ὀθόνια.)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οὐ μέντοι εἰσῆλθεν.)
- (6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역시 왔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καὶ Σίμων Πέτρος)
그의 뒤를 따라서 (ἀκολουθῶν αὐτῷ)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놓여 있는 세마포를 목격하였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τὰ ὀθόνια κείμενα.)

- (7절) 그리고 두건을 [목격하였습니다] (καὶ τὸ σουδάριον,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놓였던 [머리를 감췄던] 것입니다 (ὃ ἦ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αὐτοῦ),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οὐ μετὰ τῶν ὀθονίων κείμενον)
 따로 개켜진 채 떨어져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ἀλλὰ χωρὶς ἐντετυλιγμένον εἰς ἓνα τόπον.)
- (8절) 그러자 그 때 먼저 왔던 다른 제자가 무덤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τότε οὖν εἰσῆλθεν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ῆς ὁ ἐλθὼ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그가 보았고 믿었습니다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πίστευσεν)
- (9절)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οὐδέπω γὰρ ᾔδεισαν τὴν γραφὴν ὅτι δεῖ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ἀναστῆναι.)
- (10절)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ἀπῆλθον οὖν πάλιν πρὸς αὐτοὺς οἱ μαθητα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 절을 읽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그곳으로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같이 등장하는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에 대해 공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마 28: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막 16:1-3).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눅 24:1).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눅 24:10).

공관복음에 따르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간 여인들이 여러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일찍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돌을 굴러 줄 것인지 서로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는데 그때 ‘우리’(1 인칭 복수)라는 복수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이는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단 한 사람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여인을 대표하는 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누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나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위치한 도시로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12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막달라는 히브리어로서 ‘탑’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귀신들린 자는 도덕적으로 실수했거나 또는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은 구출받아야 할 대상이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7장 36절~50절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고난 받는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고, 안식 후 첫날 아직 동트기 전에 무덤으로 달려 왔습니다.

1절 하반절~2절을 읽으십시오. 무덤으로 급히 달려 온 마리아는 무덤을 가로 막고 있던 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옮겨진 상태였지요. 누군가가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다른 데로 옮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주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옮겨 놓은 장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주를 옮겨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아마도 로마 병사들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날이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을리는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시신을 만지는 부정한 행동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황제 (A.D. 41~54) 때 만든 비문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는 황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사람들을 잡아서 참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일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이라고 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로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예수님을 옮겨갔다는 표현은 부활의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은폐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소문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마 28:2-4).

요한복음이 부활을 암시하는 한편 제자들의 혐의를 풀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아예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 갔을 때 예수님이 시체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속해서 시신 상태로 안치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3-24).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급할 때면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당한 고통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수난의 과정은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롬 4:25).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망’보다는 ‘부활’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발견될 분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안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직도 그 수난 당하고 죽은 채로 누워 계시던 돌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부활의 현장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10)

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개켜 있더라
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러나 안식일로부터 첫날에 (Τῇ δὲ μιᾷ τῶν σαββάτων)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ὴ ἔρχεται)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으로 (πρωὶ σκοτίας ἐπι οὔση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무덤으로부터 옮겨진 돌을 보았습니다 (καὶ βλέπει τὸν λίθον ἠρμέν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 (2절) 그래서 그녀가 달려서 시몬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τρέχει οὖν καὶ ἔρχεται πρὸς Σίμωνα Πέτρον)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καὶ πρὸς τὸν ἄλλον μαθητὴν ὃν ἐμίλει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주를 옮겼습니다 (ἤραν τὸν κύριον ἐκ τοῦ μνημείου)
그리고 그를 옮겨 놓은 장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οἶδαμεν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3절)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왔습니다 (Ἐξῆλθεν οὖν ὁ Πέτρος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ής)
그리고 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καὶ ἤρχοντο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4절) 그들이 함께 달려갔습니다 (ἔτρεχον δὲ οἱ δύο ὁμοῦ.)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 앞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ής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그리고 그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καὶ ἦλθε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5절) 그러나 들여다 보니 (καὶ παρακύψας)
세마포가 놓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βλέπει κείμενα τὰ ὀθόνια.)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다 (οὐ μέντοι εἰσῆλθεν.)
- (6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역시 왔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καὶ Σίμων Πέτρος)
그의 뒤를 따라서 (ἀκολουθῶν αὐτῷ)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καὶ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놓여 있는 세마포를 목격하였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τὰ ὀθόνια κείμενα.)

- (7절) 그리고 두건을 [목적하였습니다] (καὶ τὸ σουδάριον)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놓였던 [머리를 감쌌던] 것입니다 (ὃ ἦ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αὐτοῦ)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οὐ μετὰ τῶν ὀθονίων κείμενον)
 따로 개켜진 채 떨어져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ἀλλὰ χωρὶς ἐντετυλιγμένον εἰς ἓνα τόπον.)
- (8절) 그러자 그 때 먼저 왔던 다른 제자가 무덤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τότε οὖν εἰσῆλθεν καὶ ὁ ἄλλος μαθητῆς ὁ ἐλθὼ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그가 보았고 믿었습니다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πίστευσεν.)
- (9절)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οὐδέπω γὰρ ᾔδεισαν τὴν γραφὴν ὅτι δεῖ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ἀναστῆναι.)
- (10절)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ἀπῆλθον οὖν πάλιν πρὸς αὐτοὺς οἱ μαθητα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7 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 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이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요한은 무덤을 들여다 보기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먼저 들어 간 사람은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전체 문맥상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사실을 요한은 굳이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신학자 볼트만(Bultmann)은 이 구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 요한이 속한 공동체는 이방인 공동체였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이방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주어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전해 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에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와 머리 둘레를 감쌌던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시신을 동여 매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베로 동인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나긴 했으나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베를 풀어 주어 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요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7 절에 의하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를 감쌌다는 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부자들은 시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었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죽은 것은 수치라 여겼기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덮는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사로도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왔고 그 얼굴이 수건에 싸여있었

습니다. 그 또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동명이인이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사로는 거지의 상징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싸맸던 수건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와 흡사한 모습으로 죽으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시신을 싸매고 있던 세마포를 벗겨 두고 시신만을 가져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그 사실을 목격했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거를 통해 사실의 진정성을 확정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볼 때 그날 아침 무덤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8-10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뒤늦게 무덤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성경은 그가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확인한 후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 절은 요한이 ‘보았고’ ‘믿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은 시편 16 편 10 절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보다 더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달려와서 그 말을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렸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 올 때 그들의 마음은 엉뚱하게도 앞으로 권세를 얻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를 설명하시는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³¹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³²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 를 붙들고 간하매 ³³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막 8:31-33).

“³²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³³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³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³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³⁶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시기를 원하느

냐³⁷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막 10:32-37).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능욕을 받고 죽으시고 삼일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자신들의 지위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할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사보다는 온통 쯤밥에만 관심이 있는 형국이니 귀가 아프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알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린 것이지요. 제자들이라면 그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신이 사라진 사실에 화들짝 놀라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지요. 요한은 ‘보았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믿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세상에서 복을 주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며, 경쟁에서 승리하여 명예로운 자리에 오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이나 받은 자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러다보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뒷전입니다.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바라며 오히려 때를 쓰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눈을 세상에 맞추고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예수님이 걸으신 그 좁디좁은 길을 걸어가느냐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마리아의 애통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원문해석하기

- (11절) 마리아는 울면서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Μαρία δὲ εἰστήκει πρὸς τῷ μνημείῳ ἔξω κλαίουσα.)
그런데 그녀가 울면서 (ὡς οὖν ἔκλαιεν.)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παρέκυψεν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 (12절) 그리고 그녀가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δύο ἀγγέλους)
흰옷을 입고 있는 (ἐν λευκοῖς καθεζομένους.)
하나는 머리를 향하여 하나는 발을 향하여 (ἓνα πρὸς τῇ κεφαλῇ καὶ ἓνα πρὸς τοῖς ποσίν.)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서 (ὅπου ἔκειτο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 (13절) 그(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ουσιν αὐτῇ ἐκεῖνοι·)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들이 나의 주를 가져갔습니다 (ὅτι ἤραν τὸν κύριόν μου.)
그런데 나는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οἶδα ποῦ ἔθηκαν αὐτόν.)
- (14절) 그녀가 이 말을 한 후 뒤로 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ταῦτα εἰπούσα ἐστράφη εἰς τὰ ὀπίσω)
그리고 그녀가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καὶ θεωρεῖ τὸν Ἰησοῦν ἐστῶτα)
그리고 그가 예수님임을 몰랐습니다 (καὶ οὐκ ᾔδει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ίν.)
- (15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γύναι, τί κλαίεις; τίνα ζητεῖς;)
그녀가 그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κεῖνη δοκοῦσα ὅτι ὁ κηπουρός ἐστιν λέγει αὐτῷ·)

-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으면 (κύριε, εἰ σὺ ἐβάστασας αὐτόν,
 그가 놓은 장소를 나에게 말해 주세요 (εἰπέ μοι ποῦ ἔθηκας αὐτόν,
 그러면 내가 그를 가져가겠습니다 (κἀγὼ αὐτόν ἄρῶ.)
 (16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마리아야 (Μαριάμ.)
 그녀가 돌아서게 되어 히브리말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στραφεῖσα ἐκείνη λέγει αὐτῷ Ἑβραϊστί·)
 랍보우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임) (ραββουνι (ὃ λέγεται διδάσκαλε).)
 (17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Ἰησοῦς·)
 나를 만지지 말라 (μὴ μου ἅπτου),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οὐπόω γὰρ ἀναβέβηκα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말하라 (πορεύου δὲ πρὸς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μου καὶ εἰπέ αὐτοῖς·)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ἀναβαίνω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καὶ πατέρα ὑμῶν καὶ θεὸν μου καὶ θεὸν ὑμῶν.)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ἔρχεται Μαριάμ ἢ Μαγδαληνή)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ἀγγέλλουσα τοῖς μαθηταῖς)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ὅτι εἶώρακα τὸν κύριον),
 그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καὶ ταῦτα εἶπεν αὐτῇ.)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1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가 울면서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 있었다가 그녀는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안드로 들어 갔고,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세마포와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을 보고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 있던 여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각각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은 남자들이라 너무 빨리 뛰어 와서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무덤을 떠난 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지만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가끔은 의문을 의문으로 남겨 두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질문조차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낳게 되니까요.]

12 절을 읽으십시오. 무덤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울면서 서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 보는 순간 그는 흰 옷을 입고 있는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두 천사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에서 머리 쪽을 향하여, 다른 한 명은 발 쪽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등장은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마 28:14).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막 16:5).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치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눅 24:1-4).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천사가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같은 사건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과 세마포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과 수난과 부활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행여라도 아직도 마리아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를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능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13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들(로마 병사들, 또는 시신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며 자신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의 행방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왜 세마포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지 등 논리적인 추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의 질문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울 이유가 없는데도 울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바로 마리아 뒤에 서계십니다 (14 절 참조).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던진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즐거울 때는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플 때, 외롭고 힘들어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일 때에는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텅빈 무덤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마리아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로 가심은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